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말라.
순종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2일)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불교예술 한자리… 불교문화대전 개막 불교 음악, 미술, 출판, 문학 등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불교문화주간 행사가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10월 19일 서울 종로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2022 불교문화대전' 개막식을 개최했으며,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불교미술대전 오프닝 행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재순 작가의 '석조여래불'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청신호'

조계종 총무원 TF구성 완료
대외협력, 기술방안 등 논의
경북 5개 본사 간담회 진행
내년 초 범국민위 구성 계획
정부부처 수장들 협조 약속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5cm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가 빠르게 탄력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내 TFT가 구성 완료돼 본격적인 입불 방안 등에 대한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 또한 문화재 정책 관련 정부 부처 수장들도 정책 지원을 잇달아 약속했다.

실무 TFT 활동 · 종도 여론 수렴

조계종 총무원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이 제1 종책 과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실무 TFT 구성이 확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무 TFT에는 김용구 기획차장을 팀장으로 윤승환 총무차장, 이상봉 문화차장, 황충기 문화사업단 사무차장, 임융창 홍보팀장, 신유철 문화재팀장, 김영미 백만원력팀장이 참여한다.

실무 TFT는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 관련 대외협력 △관련 기술문제 검토 △'천년을 세우다' 홍보자료 제작 · 배포 △마애불 대중 친견 및 순례 조직화 등을 논의 · 진행할 예정이다.

종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10월 20일에는 경북도 5개 본사 주지 스님들과 총무부장 호산 스님, 문화부장 탄원 스님 등이 간담회를 갖고,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 관련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제안하신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은 종도와 사부대중, 국민들의 원력이 모아져야 하는 불사"라면서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실무 방안들을 논의해 차근차근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계종은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사업을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초 '천년을 세우다'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관련 홍보사업과 국민 모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 등 "정책적 지원" 약속

문화 · 문화재 정책 관련 정부부처 수장들이 잇달아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관련한 정책 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무적이다. 열암곡 마애불이 발견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입불(入佛)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8, 1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열암곡 마애불은 조선 중기에 지진으로 넘어졌다. 발견 당시 바닥 돌과 5c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옆 상호가 매우 아름다운데 불상이 일어선다면 석굴암 불상에 비견되는 아름다운 마애불일 것"이라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어 국운창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불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히 강조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운융성의 계기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데 문체부도 많은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역시 "총무원장 스님의 취임사를 듣고 큰 숙제를 받았음을 알았다. 잘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방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최 청장은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 청장은 "열암곡 마애불은 불교의 성보로 서 계실 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다"면서 "문화재청은 경주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불상의 본래 위치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입불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20돌 "지역사회 중심 공간" 발원

10월 18일, 기념 대법회 봉행
400여 비구니 스님 모여 축하
비구니승단 화합 구심점 되길

전국 6000여 비구니 스님의 총본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이 건립 스무돌을 맞았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0월 17일 전국비구니회관 3층 대법당 만불전에서 개관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 400여 명은 비구니회관 건립을 위해 힘쓴 어른스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비구니회관이 더욱 발전, 지역사회 중심 공간이 되길 염원했다.

이날 기념법회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환 스님의 신중청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비구니회관 건립과정과 역사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추억을 되새겼다. 이후 혜춘 스님 문도회와 광우 스님 문도회 대표스님들이 전국 비구니스님들을 대표해 1990년 간행된 전국비구니회 소식지 '비구니'의 통합 제작본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본격적인 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회관 건립 20주년의 의미를 설명하며 기쁨을 표했다. 본각 스님은 "회장 취임 후 비구니회의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며 이전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비구니회관이라는 대작불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어른스님들과 전국 불자들의 큰 뜻이 담긴 비구니회관에 더욱 애착이 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관이 없었다면 비구니 스님들이 어디에 의지해 결속을 다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면서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잘 가꾸고 보듬어 스님들의 수행도량이자 포교활동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장소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원로회의장 수현 스님은 부석부의장 일법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회관은 20년간 비구니스님들의 교육 터전이자, 수백 명 스님들의 모임 공간, 포교의 장이 돼왔다"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비구니스님들이 일심단결해 부처님 재세 시 같이 화합하는 승가의 모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축사에서 "회관을 짓기 위해 애쓰고 원력을 기울인 어른스님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이라면서 "어른스님께서는 이 자리가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셨다. 앞으로도 많은 사부대중들이 힐링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비구니회관 건립과 발전에 큰 공적을 쌓은 스님과 단체, 불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회장 본각 스님은 불사에 적극 동참한 혜춘 스님, 광우 스님, 대행 스님, 진관 스님, 상륜 스님, 정훈 스님, 법운 스님 문도회와 보문종회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이 비구니스님들 모임인 목련회, 청림회, 화엄회와 정덕 스님, 정성 스님, 명호근 불자에게 공로표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건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윤미숙(덕명화), 김명희(원명화), 노말애(만월심) 불자에게는 20주년 감사패가 수여됐다.

후원금 전달도 이어졌다. 전국비구니회 서울지회(지회장 해성) 회원일동이 500만 원, 서울 정각사(주지 정목)가 1000만 원, 마하회(회장 현정) 회원 일동이 2023 샤카디타 세계대회 후원금 1000만 원, 무주 향산사 주지 성본 스님이 서울의료원 병원 포교 후원금 1000만 원, 김철종 전국비구니회 후원회장(새한그룹 회장)이 발전기금 3000만 원,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스님들이 전국비구니회 운영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7일 비구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회관이 지역사회 중심공간이 되길 발원했다.



7불로부터 역대 조사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주옥같은 법문집!

전등록 30권



전등록은 7불로부터 1조 가섭존자, 28조 달마대사, 33조 혜능대사 등 52세대 1,701인의 계보와 조사들의 깨달음의 골수를 말 밖의 말로 기록한 선종 최고의 공안집이다. 그러기에 지식이나 알음알이로는 선사들의 요지를 깨달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농선 대원선사가 선문염송30권, 화엄경81권을 완역한 혜안으로 각 조사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문을 열어 보였다.

역저 농선 대원선사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이 시대 유일한 선교 양종의 대종장으로

화엄경81권 완간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이 여기에 다 담겨있다

이 시대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전등록 30권 완역본 / 500부 한정판매 / 도서출판 문젠 T: 010-8670-1445